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만나, 매일 드세요

“목사님, 보낼 글을 며칠 것 써줬다가 매일 아침 하나씩 보내주세요. 매일 쓰시느라 고생하지 말고요. 몸 상해요.”

나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매일아침 보낼 문자메시지를 쓰느라 애쓰는 나에게 한 말이다.

사실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 몇 개의 글을 미리 써놓기도 했었다. 그런데 막상 보내려는 날에는 성령님이 그제 아니라는 감동을 주셔서 결국 그 날의 글을 다시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왜 이러실까?’ 생각이 깊던 나에게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래, 하나님은 만 나를 여러 날치 한꺼번에 주신 적이 없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 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때 모세는 한꺼번에 많이 거두지 말고 오늘의 양식만 거두라고 했다(출16). 혹 많이 가져가는 자의 것은 여지없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상해있었다.

내가 매일 아침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오늘 하루의 만나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쌓아놓고 하나씩 보내는 것은 성서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처사는 아니었나 보다.

5년 국내집회, 25년 해외선교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을 나는 이 사이버선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 생각한다. 이제 가입자 수가 5천에 가깝다. 한 지인은 3년 안에 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지만, 나는 30년 안에 천만 명에게 양식을 먹일 꿈을 꾸다. 일단 입은 크게 벌리고 볼 일이다.

나는 이 글을 쓸 때 정말 최선을 다한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고, 사진도 이것저것에서 찾아 고르고, 작품 하나, 동영상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결정한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고 건강식이 될까 염려하는 것처럼, 나도 영적 양식을 조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바라건대 매일 아침에 받는 오늘의 만나로 모든 자들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했으면 좋겠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지난 21일 서울과 인천의 교육부 교역자, 교사 및 임원들을 향해 최고의 교관이자 교육국 담당 이초석 목사님은 이렇게 교육하셨다.

“필립의 왕인 호랑이가 왜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필립을 누비고 다니는지 아니? 먹이를 위해서일까? No. 필립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지형지물을 파악하게 하고, 지리적 환경을 익혀주기 위해 누비며 다니는 것이다. 그냥 왕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왕도 가려운 곳은 내가 긁어야 시원한 법,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자가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호랑이도 새끼를 가르치거

로 전반적인 인성관리가 필수라는 거다.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아래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이 명품인생, 명작인생을 만들려면 체질개선, 정신개조가 필요하다.”

또한 24일, JC 아카데미에서 목사님은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안목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What can I do for you)?, 어떻게 도와주랴(How can I do for you)?, 늘 물으신다. 왜?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

그런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치 아니하고(잠26:1), 미련한 자의 것은 취할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잠26:7). 그러므로 미련을 깨버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어 25일 중고등부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언어는 예술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고양이 두 마리가 쥐를 쫓는데 그만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한 고양이는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니 못잡을 거야.’ 라고 했지만, 다른 고양이는 ‘썹썹’ 새소리를 내어 쥐를 꼬아내어 잡았다. 고양이도 2개 국어를 해야 하는데,



조직적인 정신력은 반복교육에서 나온다 (서울·인천 대학청년부 임원교육, 2016. 6. 21)

늘, 그러니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 아닐까. 지도자는 손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해야 한다. 그런데 머리에 든 게 없다면 어찌 손발에게 지시를 할까. 맛있는 스프가 뜨겁기만 하듯,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 소리나 지르고,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하지 않겠는가. 지휘관은 선견자요 선각자다. 먼저 보고, 먼저 깨달아야 함을 잊지 말라. 진정한 용기는 주도면밀함에서 나오고, 주도면밀함은 곧 머리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또한 장교와 사병의 차이는 의복부터 다르다. 옷이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또 의상에 따라 내 자세도 달라진다. 청바지 입었을 때와 정장차림일 때 너희의 행동이 어찌 달라지는지 유심히 관찰해볼라. 아울러 지도자는 헤어스타일이나 표정관리, 언어관리도 해야 한다. 한 마디

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 중 하나가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에서 살다온 삼촌이 다시 귀농하면서 하는 말, “아휴 서울은 물도 사먹어야 되는 삭막한 곳이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조카는 “그래? 물도 상품이라면 뭘들 상품이 안 될까?”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고, 런던의 한 유학생은 김밥을 햄버거처럼 포장해서 팔아 대박이 나고 프랜차이즈를 세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네덜란드가 꽃을 어떻게 운송해서 세계에 파는지 다 생각해볼 문제다. 만물에 너의 아이디어를 붙여넣으면 그것은 상품이 된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아이디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란단다. 또한 지혜란 응용력이며, 정보입수와 그 활용인데, 그것은 간접자본을 말한다. 그래서 시류를 아는 자를 쓰라고 성경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떤가? 그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의 귀가 막혀 있다.

글로벌 시대를 사는 너희는 어찌 해야 할까 생각해보라.

또한 얼굴이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언어는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다윗을 보라. 그는 15년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시로 썼고, 그 시가 씨가 되어 결국엔 왕이 된다.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한다. 의식적으로 말을 잘 뿌려서 무의식중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내 인생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 다 혀에 달려 있다. 인생의 여백이 아직 많은 너희는 혀를 잘 사용하여 너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라.”

누군가 목사님의 설교는 참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실천만 한다면 영·혼·육이 보장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젊은이를 위한 JC아카데미

노력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

엘루체식당 5층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3~7)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라

당신이 상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시키신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목욕을 시켜놔도 다시 그 자리에 눕는 것처럼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을 안했으면 하십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24).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기거하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고는 “왜 거기 누워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나 병을 견디고 살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이 순간 씻은 듯 나았습니다. 이후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5:14). 주님은 “다시 병이 재발하면 나에게 와라” 하지 않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의 양심을 치심으로 다 뒷걸음질쳐서 도망가게 하신 후에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잡히면 넌 도로 맞아 죽는다. 그럴 때 꼭 나를 찾으라’가 아니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은 너를 선인으로도 악인으로도 만들수 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의분에 못 이겨 경찰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경찰이 제 아버지 친구 분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고 의협심에 불타 경찰을 구타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나서 합의를 보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맘고생 많았다. 합의가 되었으니 걱정마라. 하지만 다시는 이런 짓하지 마라.” 예수님이나 부모님이나 같은 마음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죄짓는 거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 사도인 바울도 죄 때문에 ‘오호라 곤고하구나!’

했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힘을 성령이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바울이 받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 속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섬뜩하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요일3:8). 그 다음 절도 볼까요? “하나님

께로 서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요일3:9).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났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서 죄를 못마시듯 하는 건 어찌된 영문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용서는 받지만 뿌린 씨는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다윗마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삼하12:10~11). 이것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의 대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 이것은 사실로 이루어져 큰 아들 암논이 이

복형제인 다말을 범하자 이에 분노한 둘째 아들 암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그 암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의 손에 죽었으며,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과 다윗의 첩을 달라고 하다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암살롬이 다윗의 첩을 대낮에 왕궁에서 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씨는 하나 뿌려도 열매는 여러 개 열리듯이 죄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느라 죽을 고생을 한 모세,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의 대가입니다. 무리 바에서 반석을 두 번 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신32:51~52).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교회를 깨뜨리셨고, 제 사지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리라 마음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일침을 뉘줄 수 있는 자가 옆에 있는 자입니다. 끝낼 처럼 따끔하게 충고하고 충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자요 성공한 자입니다. 다윗 옆에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를 까냐?’고 화를 냅니다. 세례요한에게 해롯이 그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랬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찔림을 받아야 가능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발람은 나귀가 사람소리를 내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귀가 막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길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회개란 교회 와서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뉘우칠 회(悔)와 바꿀 개(改)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뉘우친 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죄에서 방향을 틀는 것입니다. 전환을 말하지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같은 습성을 버리고 단호하게 죄악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 안하는 것,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 안 하는 것, 다투던 사람이 다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는 간음 따윈 안해’ 이러시는 분들, ‘내가 무슨 살인을 해?’ 하시는 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이미 간음이고(마5:28),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일3:15).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와 싸워 이기는 습관을 들입니다. 매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면 언제 장성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당부가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죄와 싸워 이깁시다. 2천 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처럼 피 뿌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깁시다.

병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자각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은 초기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대체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3기다, 말기다, 온 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다며 사형선고를 내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각증상이 없는 죄, 인지 못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왜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점검합시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지으려는 자신과 싸웁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도 많고 어처구니 없을 때도 많다. 믿었던 사람이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하거나 눈에 뵈히 보이는 거짓말로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진실은 몰라주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도 부지기수로 본다. 대화나 소통은 아예 부재하고 추측과 억측으로 오해의 골은 나날이 깊어만 가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팍팍하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간다. 사실 이게 요즘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걸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는 왕의 자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뒷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집회를 다니다보면 참 여러 군상들을 만난다. 복음 장사꾼들도 많고 목사님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는 무리들도 있다. 목사님이 그때마다 한결같이 취하시는 태도는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것이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이 말씀은 내 삶에 참 많은 울림을 주었다.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가치와 비전은 결코 한낱 돈다발에 휘둘릴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달려드는 고기때로 인해 몸이 뜯기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도 항구여일하게 목표를 향해 진군해 가시는 것이다.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깊이 곱씹어 볼수록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어찌됐

건 줄 수 있다는 것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손 내밀고 쫓아다녀야 하는 것보다 감사한 일 아닌가. 내가 주면 흔들여 놀려 넘치도록 보상해주실 하나님의 약속(눅 6:38)을 믿기에 더욱 그러하다. 상대가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든지,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어떤 세파도 나를 삼킬 수 없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진실로 참 기쁨의 원천을 찾은 자의 모습이다.

그 어떤 위험도, 종국엔 죽음까지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오늘 더욱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은택 전도사

미국 제일의 재즈 음악가인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은 뉴올리언스에 서 길거리의 매춘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11살 때부터 그는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불량 서클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소년원에서 그는 코넷이라는 악기를 배우게 된다. 코넷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기 때문에 그는 밤낮없이 불었다.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어 있었다.

출감 후 그는 고향인 뉴올리언스에서 직업 음악인이 되었고, 밴드를 조직해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며 돈을 벌었다. 18살 때 뉴올리언스의 최고의 트럼펫터 킹 올리버(King Oliver)를 만나 코넷에서 트럼펫으로 악기를 바꾸면서 일취월장한 기량을 선보인다. 그 후 킹 올리버 악단에 합류했고, 다시 플레처 헨더슨(Fletcher Henderson) 밴드와 합류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의

재즈 보컬리스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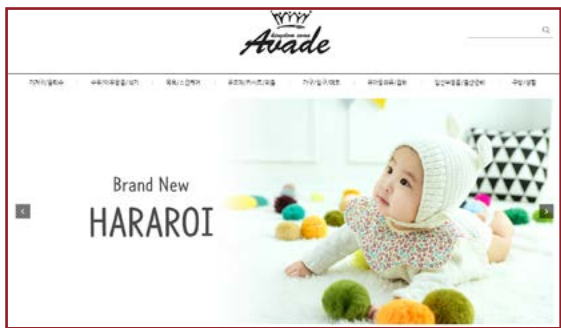
어느 날 그는 존경하는 선배를 만나 물었다. “선배님,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직업을 갖고 사는데,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뭘니까?” 그러자 선배가 대답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바치기 때문이지.”하고 대답했다.

정답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해서 재미있는 일을 하라. 하면 즐거운 일을 하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괜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부러워 말고,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극대화하라.

단점을 보완하려 말고, 나의 장점을 살리면 인생이 즐겁고, 각 분야에 수장이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예수중심편집실



사랑하는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한 목사님을 따라가는 아바드의 김희정입니다. ‘차선은 없다 내게는 오직 최선뿐이다!’라는 말씀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며 더욱 예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언제나 감동이며 그 모습을 따라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 끝없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축복이자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희 회사 식구들과 함께 캐피탈 호텔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귀한 교육을 받은 후 돌아가려는 찰나, 성령님의 감동 따라 목사님께 기도를 받

님 앞에서 일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이내 어떤 회사나 물으셔서 ‘유통하는 회사’이며, 또 주력으로 유통하는 물품이 뭐냐 물으셔서 ‘유아용품’을 주력으로 하되 저희의 모토는 고객 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추는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래, 기도하자!”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힘을 다해 꼭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는 예수중심교회의 청년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서 ‘도전과 모험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에 힘입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 랑신 도전과 모험 없이는 미래가 없다

오려 갔습니다. 회사 이름이 무엇이나 물으셔서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이름의 뜻은 ‘삶으로 예배하다!’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이내 어떤 회사나 물으셔서 ‘유통하는 회사’이며, 또 주력으로 유통하는 물품이 뭐냐 물으셔서 ‘유아용품’을 주력으로 하되 저희의 모토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추는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래, 기도하자!”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힘을 다해 꼭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해주셨던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차선을 모르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회사를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세대를 말씀하실 때, 가장 크게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 목사님이 평양에서 설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황폐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저가는 순간을 꿈에 그립니다. 또 그곳에서 준비된 느헤미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바드가 돌아오는 7월 3일이면 창립 1주년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일들 가운데,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에서도 항상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걸음, 한걸음 헤쳐나갔습니다. 그랬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

도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고 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촉진제’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자본금이 천만 원도 없었던 저희가 이제 연 매출 15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를 향해 한국의 물건을 파는 무역상이 되고자 합니다. 개성 상인처럼 5전을 보고도 십리를 가고,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매사 정직하고 땀땀하며, 충실한 하인인 돈을 잘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축복하신 것을 이루겠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근거리에서 목사님의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언제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아바드(AVADE) 일동 올림

로렘나무 아래로!

잠시 짬을 내어 영·혼·육을 충전하는 것은 멀리 갈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승리한 엘리야는 그러나 되레 영적 고갈에 휩싸여 무기력해졌고(왕상 18:19~40), 결국 로렘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에 이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시 일어나라고 재촉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다. 그저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어 먹고 쉬기를 반복하여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하길 기다려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몸과 마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주시며 영을 살리시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다.

예수님 역시 휴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휴식을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휴식의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는 패턴으로 사역과 휴식을 반복하셨다(눅21:37). 밤샘 근무를 하는 직업군일수록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이러한 예수님의 휴식 패턴은 당연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또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이후 그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것이었다(막6:30~32). 이 말씀 속에서 휴식은 많은 사람이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닌 소수가 ‘따로’하는 것이며, 장소는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 아닌 ‘조용한 곳’, 휴식 시간은 ‘잠깐’, 즉 너무 오랫동안 휴식에 젖어 원래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엿볼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비결에 대해 혹자는 철저한 휴식문화를 꼽는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을, 낮에는 낮잠을 통해 육체를, 저녁에는 가족과 대화를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올바른 휴식문화가 지금 유대인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죄다. 노래에도 쉽표가 있듯 삶에도 휴식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자. 그래야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다. **하인명**
renming@daum.net

항상 선을 좇으라

얼마 전 대학부 임원 MT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펜션 옆에 있는 운동장에 모여 체조도 하고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좀 되다 보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그만 휴대용 앰프를 써서 음악도 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션 건너편에서 한 아주머니가 “여기가 무슨 운동장이야~! 누가 확성기를 써! 이 아침에!!”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책임자인 저와 운영진 한두 명이 아주머니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펜션에서 꽤 떨어진 곳에 그 아주머니의 별장이 있었더랬지요. 저희는 사전에 펜션 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었던지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펜션이 생긴 뒤로 5년째 펜션 주인과 계속 싸우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여 가며 우리 일행과 펜션 주인에게 (오래 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 때 그 아주머니는 “너희 어디서 온 거야?”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침 우리 교회 마크와 십자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요. 저와 운영진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조용히 놀다 가겠다고 아주머니를 회유하고는 야외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 중에 제가 임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한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6:27~28),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살전5:15).

문득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날 밤, 학생들을 데리고 MT를 떠나는 저에게 “항상 심사숙고하라. 감정적 행동은 사고를 유발한다.”고 당부하셨던 것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그 때 저와 같이 간 학생 중에 누군가가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건데 왜 그러냐’며 우리의 권리만 주장했거나, ‘왜 욕하고 소리를 지르냐’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잘못 처신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 했던 순간이었습디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중심교회의 얼굴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과 같은 운유함과 겸손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나 세상에게나 항상 선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게으름의 대가

회사에 존경하는 선배가 있다. 그녀는 한 남편의 아내이며,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부서의 팀장급 과장이다. 그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터를 늘 도맡을 정도로 유능하고, 모두에게 상냥하고 씩씩하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 본인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는다. 회사에서도 잠시도 쉴 시간 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하고, 가족의 식사며 밀린 집안일을 처리한다. 이런 그녀에게 최근 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점심시간에 비즈니스 영어회화학원에 다닌다는 것이다. 점심식사는 간단히 때우고 꿀 같은 휴식을 포기한 채 학원에 다닌다는 말에 적잖이 놀랐다. 더욱이 그녀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다. 회사의 해외 현지직원들과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며 해외 언론사들의 영어인터뷰에도 능수능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그녀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영어학원을 다닌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난 딸린 식구도 없고 쟁겨야 할 아이도 없는데 무엇이 두려워 영어 공부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현재 교회 교육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

는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자기계발은 지속적으로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위킵스 선배의 결단을 보며 내 안의 게으름이라는 고름을 짜내야겠다고 다짐하고, 당장 회사 근처 영어학원을 찾았다. 연초부터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갈일이 많아져 한동안 영어스터디나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알아보다가 끝을 흐지부지했던 나를 채찍질했다.

성경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잠 12:24)고 했다. 그 선배가 왜 위킵스인 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남들보다 빠른지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선배의 부지런함과 자기계발을 쉬지 않는 실천력 때문이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을 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게으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게으른 행동에 대한 하늘의 벌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우리 모두 게으름의 대가로 옆 사람의 성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기계발과 노력을 꾸준히 하여 부지런함의 대가로 성공의 주인공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Global Study ::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니 뿌리가 깊어야 한다

A big tree is blown in the wind, so it needs to be deep-rooted.
大树因为遮挡大风, 所以应该深深扎下根。

큰 인물은 자고로 심지가 깊어야 대성할 수 있다

A great man must be strong minded in order to attain greatness.
自古以来都是大器晚成, 要深深扎下根。